

익모초 종자 파종 법

천안시 윤은영

1. 서 론

3년 전에 도로변 공한지에 몇 해를 묵어 낡은 씨앗을 약간 습한 풀숲이 있는 곳에 약 200m 길이 양쪽 사면에 익모초 씨앗을 고루 뿌리고 통행 할 적마다 세밀히 살펴본바 파종된 년도 여름에 눈앞에 나타난 익모초 포기가 가냘픈 모습이나마 고루 눈에 띄어서 마음이 흐뭇했으나 종시 개화한 포기는 전부 꽃이피어 있었다. 이것이 겨울을 지나 아까시아 꽃이 지고 족제비싸리나무의 꽃이 필 무렵 제법 소담한 포기가 50cm 높이로 성장하여 오고가는 인파의 눈의 띄었는지? 6~7월 어느 날 한 아낙네가 일삼에 단수로 보드랍고 연한 익모초대공을 끊어가는 것을 발견, 향의를 별였더니 그의 애원사인 즉 자신과 아들 내외가 여름이 다치면서 일에 지쳐 쇠잔하기에 생즙을 내어 나도 먹고 아들 내외에게도 먹이고저 함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필자가 어릴적에 체험 한 바로는 한여름 1개월 여간 이 쓰디쓴 익모초 생즙을 내어 복용한 탓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익모초 자체를 못 쓸 잡초로만 알아 내버리는 습성 재고와 여지가 있으며 특히 양봉농가의 밀원수종 중 여름화분수용인 무궁화를 제외하고 2개월 반 75일간 개화하는 밀화분 겸용 식물은 전 세계 에서도 극히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이풀의 특성은 결실한 종자를 가진 당년 대공이 바람에 흔들려 종자가 지상 습지에 낙하한 씨앗은 당년 추기(秋氣)에 발아하고 부적절한 환경에 낙하한 종자도 2~3년 또는, 5년 후에도 발아한다.

익모초는 2년생 식물이며 심근성 식물이다. 따라서 일차 재배한곳엔 두면 손을 대지 않아도 여전히 지면에 자생번식하기 때문에 밀원 식물

로서의 활용가치가 적합하며 남녀노소간 건강보신용으로 크게 사용되는 식물이다.

2. 재배 유의점

가. 연내 봄·여름동안에 발아 성장한 포기는 반드시 겨울 추위를 겪지 않으면 개화 결실이 안 된다.

나. 이른 봄 3~4월에 종자를 파종 할 때는 춘화처리를 하면 당년 8, 9,10월에 개화하여 밀원이 된다.

3. 춘화처리방법

이방법의 최초 해명자는 소련의 “바나리란” 일명 “바나리섹션”이라고 하며, 그 원리를 제공 보편화한 것은 환공조선시대부터 흘러 전해 왔으며 이때부터 익모초 파종은 봄 3월 초순(춘분절)에 파종 재배하면 완전결실을 거두는 식물이다.

인위적 춘화처리 방법 순서는 파종기를 “춘분절”로 결정하고, 이 종자를 따스한 온수에 침종(15℃에서 12시간), 종자가 물을 담구어 비대해진 종자를 건져 물기가 약간 있을 때 면포에 싸서 따스한 방바닥에서 발아 촉진을 하여 색깔에 약간 흰빛을 보일 때까지(12시간 미만) 발아시킨 후 -20℃의 냉장고에 투입 보관, 18~20일 후에 방출 파종하면 된다.

춘분이 매년 3월 21일이므로 2월말 15℃ 온수에 6시간정도 침종 후 온실에서 12시간 발아촉진, -20℃ 냉동 후 파종하면 된다.

※ 윤은영 선생님께서 밀원용 익모초 종자를 기증하여 본 협회에 보관 중에 있으니 대량으로 익모초를 식재 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본 협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